

이선화 LPGGA 신인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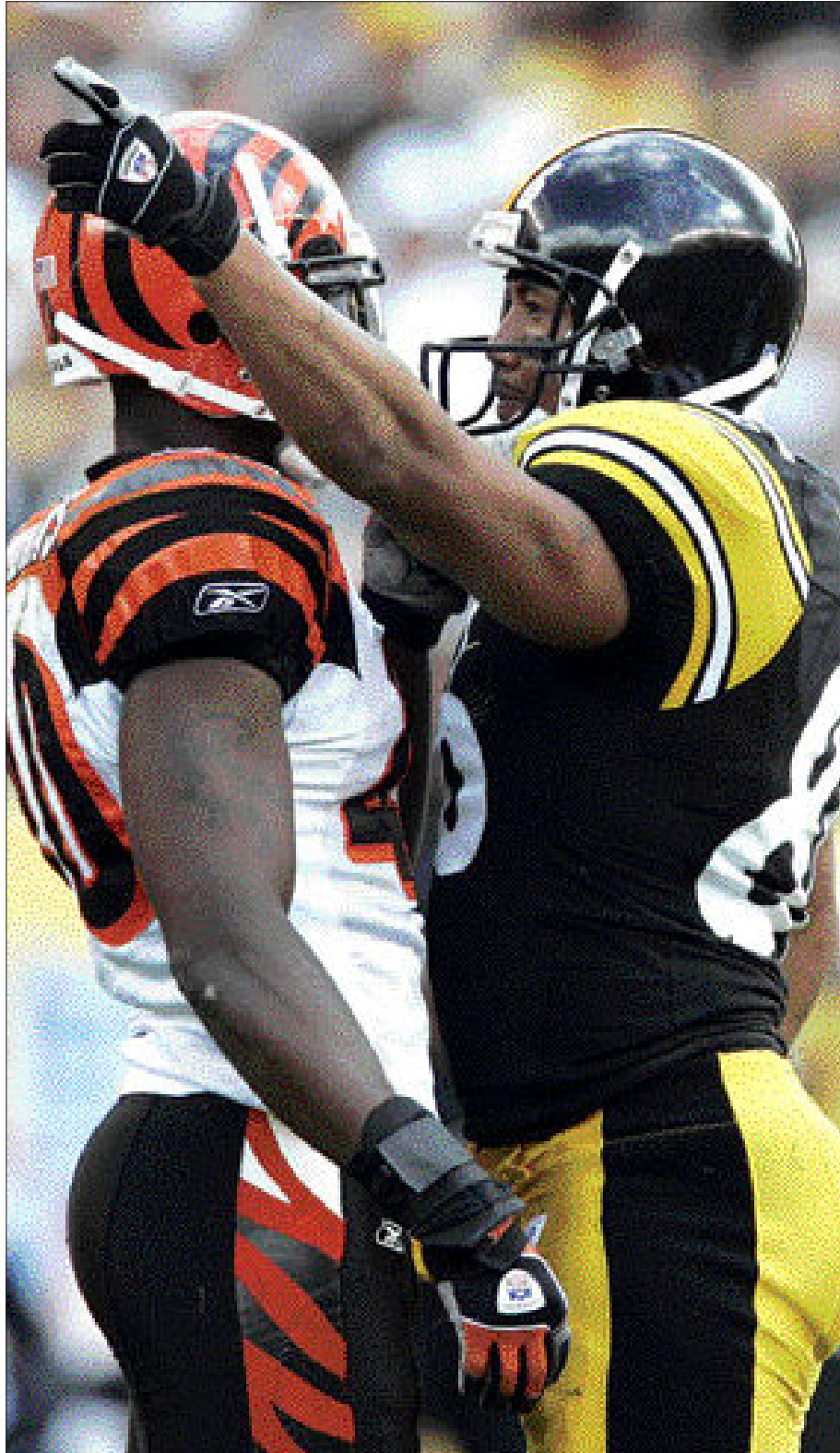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다섯 번째 한국인 신인왕이 탄생했다. LPGA 투어 새내기 이선화(20·CJ·사진)는 25일 끝난 통스드릭스오픈에서 공동 39위(2오버파 290타)에 오르면서 신인왕 포인트 11점을 보였다.

올 우승 1회·준우승 3회 한국 선수론 다섯번째

신인왕 포인트 총점 1천09점이 된 이선화는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미야자토 아이(일본·760점)를 큰 점수차로 따돌리고 최우수신인에게 주어지는 '루이스 석스 플래시 신인상' 수상을 굳혔다. 신인왕 포인트가 주어지는 대회는 코로나 모렐리아 챔피언십이 남아 있지만 미야자토를 비롯한 신인왕 경쟁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해도 이선화를 앞지를 수 없다. 이로써 한국은 1998년 박세리(29·CJ), 1999년 김미현(29·KTF), 2001년 한희원(28·힐라코리아), 2004년 안시현(22)에 이어 다섯 번째 LPGA 투어 신인왕을 배출하게 됐다.

이선화는 "올해 목표가 최소한 1승을 거두고 신인왕에 오르는 것이었는데 둘 다 이뤄내서 기쁘다"면서 "중반 이후 많이 지쳐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신인왕을 확정하기 위해 그동안 출전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 최연소 프로 자격 취득과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이선화는 지난해 LPGA 2부 투어 상금왕에 이어 또 하나의 타이틀을 차지하게 됐다. 이선화는 시즌 초반 세 차례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신인왕 레이스에서 앞서가기 시작해 6월 슐라이트클래식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안으며 독주했다. 이선화는 7월 들어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해 미야자토에게 쫓겼지만 지난 4일 끝난 스테이트팜클래식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면서 추격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유럽 3회 연속 우승 호화군단 미국 제쳐



미국-유럽 골프대항전인 라이더컵에서 유럽이 3회 연속 미국을 제압했다. 유럽은 25일(한국시간) 아일랜드 K클럽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 싱글매치플레이 12경기에서 8승1무승부3패로 승점 8.5점을 추가, 미국을 18.5-9.5로 따돌렸다. 이로써 유럽은 2002년과 2004년에 이어 3회 연속 라이더컵을 차지하면서 1985년 이후 11차례 대회에서 8승3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역대 전적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25승11패로 앞서 있다. 미국은 타이거 우즈, 짐 퓨릭, 필 미켈슨 등 세계랭킹 1~3위를 비롯한 호화 멤버를 내세웠지만 이번에도 유럽의 팀워크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모래알 군단'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했다. 전날까지 승점 10점을 얻어 6점에 그친 미국에 크게 앞서면서 우승을 눈앞에 뒀던 유럽은 싱글매치플레이 5번째 주자로 나선 루크 도널드(잉글랜드)가 채드 캠펬를 상대로 2홀차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에 필요한 승점 14점을 채웠다. 7경기가 진행 중이었던 도널드가 17번 홀에서 3m 짜리 파파트를 집어넣으면서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은 바람에 남은 경기는 싱겁게 진행됐다. 이날 유럽은 첫번째 주자 콜린 몽고메리(스코틀랜드)가 데이비드 톰스를 1홀차로 꺾으면서 미국의 추격 의지를 초반부터 눌러놓았다. 1, 2라운드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이 스튜어트 싱크에 4홀차로 크게 졌지만 폴 케이시(잉글랜드)가 미국의 '2인자' 퓨릭을 제치고 데이비드 하웰(잉글랜드)이 브렛 웨더릭을 이긴데 이어 도널드가 캠펬를 꺾으면서 우승을 확정지었다. /연합뉴스

재미교포 앤서니 김 2위...프로데뷔 성공적

PGA 텍사스오픈 최종

재미교포 앤서니 김(21·사진)이 프로 전향 후 처음 출전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우승까지 넘보는 선전을 펼쳤다. 초창 선수로 출전한 앤서니 김은 25일(한국시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라간테라 골프장(파70·6천896야드)에서 열린 발레로 텍사스오픈 4라운드에서 보기는 3개로 막고 버디 8개를 쏟아내며 5언더파를 쳐 합계 12언더파 268타로 딘 윌슨(미국), 저스틴 로즈(잉글랜드)와 함께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앤서니 김은 29만8천달러의 상금도 받았다.

무명의 에릭 액슬리(미국)는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를 치는 부진한 성적을 냈지만 합계 15언더파 265타로 PGA 투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에서 태어난 앤서니 김은 13세 때 전국대회를 제패하는 등 주니어 시절 네 차례나 '올 아메리칸'에 뽑혔고 올클라호마대 1학년 때 필 미켈슨 상을 받는 등 골프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또 3학년이던 지난해에는 8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과 영국의 국가대항전인 위커컵에 아시아계로서는 처음으로 미국대표로 출전했고 올해 7월 열린 US아마추어 퍼블릭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번 텍사스오픈에서 4라운드를 공동 13



위로 시작한 앤서니 김은 전반 버디 4개를 보기에 2개로 바꾸는 등 기복이 심했지만 10번 홀(파4) 보기를 범한 이후에는 12번과 13번 홀, 16번홀과 17번홀에서 버디를 낚아 순위를 한껏 끌어 올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랜만에 보는 하인스 워드의 기싸움

미국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0·피츠버그 스틸러스·오른쪽)가 25일 피츠버그 하인스필드에서 벌어진 정규시즌 3주차 신시내티 벵갈스와의 홈경기에서 1쿼터 도중 상대팀의 매튜 윌리엄스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피츠버그는 이날 20-28로 패했다. /연합뉴스

담양다이너스티CC 개장 임박



영국 왕실의 성 옮겨놓은 듯 프리미엄 골프장 시대 연다

오는 11월 시범라운딩과 2007년 5월 그랜드 오픈 예정인 담양다이너스티CC가 국내 최고 수준의 코스와 고품격 프리미엄급 시설을 갖춘 골프장으로 알려지면서 개장전부터 골프 매니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담양 다이너스티CC는 세계적 명성의 설계자에 의한 뛰어난 경관활용과 자연친화적 코스설계로 '인간과 자연, 골프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여기에 '영국 왕실의 성'을 재현한 듯한 클럽하우스를 건설, 특급 호텔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코스설계 명인 로널드 프림 작품

특히 담양다이너스티CC VIP정회원은 동두천 다이너스티와 함평다이너스티CC는 물론 계획중인 수도권 안성, 장흥, 경북 칠곡, 담양 대덕, 나주 문평, 장성 등 전국 계열골프장 9곳 모두를 그린피안이 이용할 수 있고, 동반자들도 연 30회까지 그린피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담양군 금성면 외우리 산 83번지 일원에 총18홀(파72·6천384m)규모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담양다이너스티CC는 제주 나인브리지와 진주 아시아나CC등을 설계한 세계적 명성의 로널드 프림이 코스를 설계, 해발 200m의 완만한 구릉지에 코스별로 다양하고 독특한 특성을 한껏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년이상 된 골프장처럼 느낄 수 있도록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 최상의 자연친화적 골프장으로 건설됐다. 건물 2천 585평 3층규모의 클럽하우스 외관은 영국 왕실의 성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이고, 내부는 중동 두바이의 7성급 특급호텔 내부와 카자흐

스탄 대통령궁 설계로 이름을 떨친 세계적인 인테리어 설계자 안드리아 비세고와 마쓰모토 비고니가 이름을 걸고 꾸렸다. 내부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나무결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의 엔틱가구 등 모두 이태리 최고급 수입가구들로 꾸며져 특급호텔의 안락함과 휴식을 보장한다. 동반자도 계열골프장 그린피 면제

면 20여분이 소요되지만 오는 12월말 88고속도로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광주에서 이동거리 15분이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담양다이너스티CC는 소수정예, 최고 품격의 프리미엄 골프장에 걸맞게 5억5천만원의 VIP정회원권을 분양하고 국내 최초의 파격적인 특전을 부여한다. VIP정회원에게는 프리부킹보장에 회원 및 지정인 각 1인 그린피를 면제해 주고, 회원 가족 1명 및 지정인 가족 1명은 주중 그린피 면제와 주말 회원대우를 해준다. 또한 담양다이너스티를 비롯 대구그룹 소유 전국 9개 골프장에서 회원 또는 지정인의 동반자 전원

담양다이너스티CC VIP 정회원 특전

- 프리 부킹
-본인·지정인 그린피 면제
-담양 포함 9개 계열골프장, 본인과 지정인의 동반자 전원 그린피 면제(연 30회)
-본인 및 지정인 가족 1명 주중면제, 주말 회원대우

클럽하우스 최고급 수입가구 장식

이외에 담양다이너스티CC에 스위트 룸과 로얄침실을 갖춘 골프텔을 건립, 무료로 제공되고 9개 계열골프장에도 모두 콘도나 골프텔을 갖춰, 여행을 하면서도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